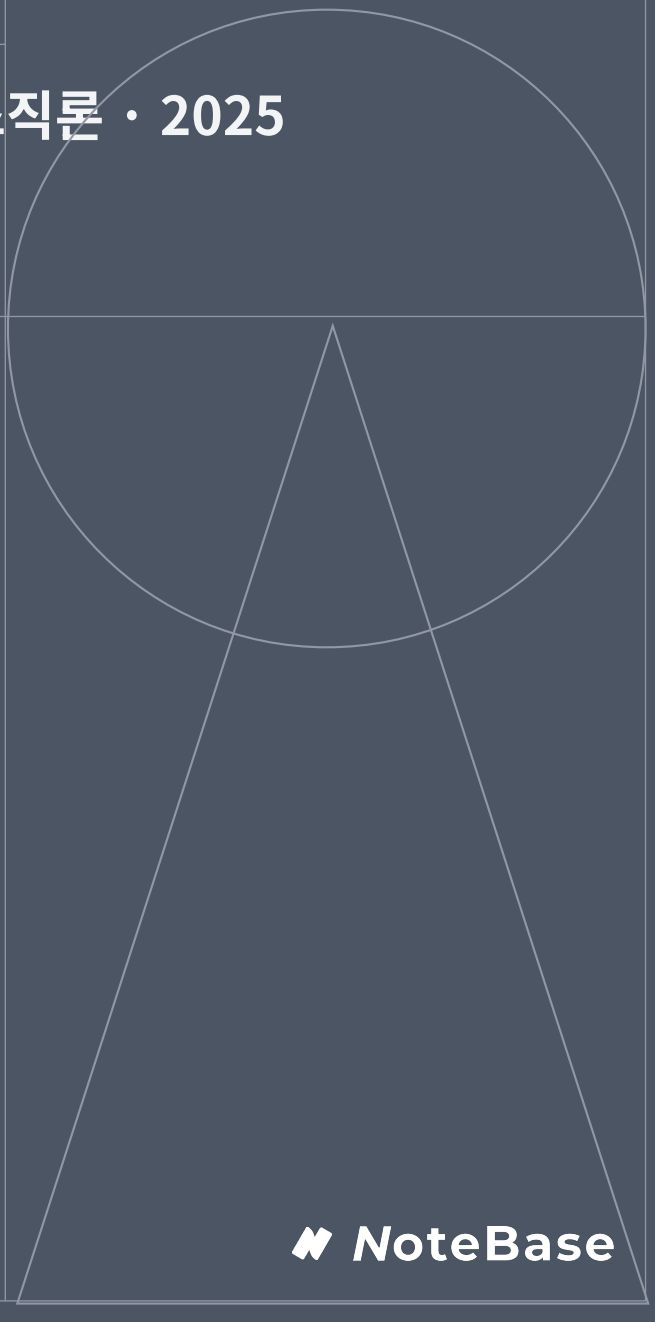
기출OX 해설집

공무원/군무원/9급 · 자료조직론 · 2025



NoteBase

기출OX 해설집

공무원/군무원/9급 · 자료조직론 · 2025

공무원/군무원/9급 · 자료조직론 · 2025

1. ISBD의 서지기술 요소는 필수, 해당 시 필수, 선택 요소로 나뉜다. 다음 중 필수 요소에 해당하는 것은?
① 본표제
② 첫 번째 책임표시
③ 판표시
④ 매체유형

정답 4번

출제 포인트

이 문제는 ISBD 서지기술 요소의 수록 수준인 '필수'와 '해당 시 필수'를 구별하는 문제이다.

핵심 개념

필수(M)는 자료의 조건과 관계없이 기술해야 하는 요소이고, 해당 시 필수(MA)는 그 요소에 해당하는 정보가 자료에 존재하거나 적용되는 경우에 기술해야 하는 요소이다. 이 구분에서 매체유형은 필수이고, 본표제·첫 번째 책임표시·판표시는 해당 시 필수이다.

선지별 해설

① X — 본표제는 '필수'가 아니라 '해당 시 필수' 요소이다. 틀린 표현 '필수 요소인 본표제'는 '해당 시 필수 요소인 본표제'로 고쳐야 한다.
② X — 첫 번째 책임표시는 책임표시가 자료에 나타나는 등 적용되는 경우 기술하는 '해당 시 필수' 요소이다. 틀린 표현 '필수 요소인 첫 번째 책임표시'는 '해당 시 필수 요소인 첫 번째 책임표시'로 고쳐야 한다.
③ X — 판표시는 자료에 판에 관한 표시가 있어 그 요소가 적용되는 경우 기술하는 '해당 시 필수' 요소이다. 틀린 표현 '필수 요소인 판표시'는 '해당 시 필수 요소인 판표시'로 고쳐야 한다.
④ O — 매체유형은 내용을 전달하는 수록매체의 유형을 나타내며, ISBD에서 필수(M)로 지정된 요소이다.

오답 포인트

본표제나 책임표시는 서지기술에서 매우 기본적으로 보여 모두 필수라고 생각하기 쉽다. 그러나 이 문항은 요소의 중요도가 아니라 ISBD가 부여한 수록 수준 M과 MA의 구분을 묻는다.

NoteBase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ISBD 요소의 필수성을 묻는 문항에서는 먼저 M과 MA를 구분한다. 매체유형은 M, 본표제·첫 번째 책임표시·판표시는 MA로 판단한다.

암기 포인트

매체유형은 M, 본표제·첫 책임·판표시는 MA이다.

NoteBase

2. 청구 기호(call number)의 구성 요소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분류기호
② 부차적 기호
③ 배가 기호
④ 별치 기호

정답 3번

출제 포인트

청구기호를 이루는 기호와 청구기호를 이용하여 자료를 서가에 배열하는 행위를 구별하는 문제이다.

핵심 개념

청구기호는 도서관 자료의 서가상 위치와 배열 순서를 나타내고 개별 자료를 식별하게 하는 기호이다.
일반적으로 별치기호, 분류기호, 도서기호, 부차적 기호로 구성된다.
분류기호는 자료의 주제를 나타내고, 도서기호는 같은 분류기호를 가진 자료를 개별화한다. 별치기호는 별도로 배치할 자료의 위치나 자료 성격을 나타내며, 부차적 기호는 권차나 복본처럼 필요한 추가 식별 사항을 나타낸다.
배가는 이러한 청구기호에 따라 자료를 서가에 배열하는 작업이다.

선지별 해설

① O — 분류기호는 자료의 주제 분야를 나타내는 청구기호의 핵심 구성 요소이다.
② O — 부차적 기호는 권차·복본 등 자료를 더 세밀하게 식별하는 정보를 덧붙이는 청구기호의 구성 요소이다.
③ X — 배가 기호는 청구기호의 구성 요소로 보는 용어가 아니다. 틀린 표현인 '배가 기호'는 '도서기호'로 고쳐야 한다. 배가는 기호의 명칭이 아니라 청구기호 순서에 따라 자료를 서가에 배열하는 작업이다.
④ O — 별치기호는 자료의 형태·용도·소장 위치 등에 따라 별도로 배치되는 자료를 표시하는 청구기호의 구성 요소이다.

오답 포인트

청구기호가 자료의 배가에 사용되므로 '배가 기호'도 구성 요소처럼 보이게 한 것이 함정이다. 그러나 배가는 배열 작업이고, 구성 요소의 명칭은 별치기호·분류기호·도서기호·부차적 기호이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각 용어가 자료에 실제로 적히는 식별 기호인지, 그 기호를 활용하여 수행하는 작업인지 구분한다. 주제·개별 자료·별도 위치·권차나 복본을 나타내면 청구기호의 구성 요소이고, 서가에 자료를 배열하는 것은 배가 작업이다.

NoteBase

암기 포인트

청구기호는 '별치·분류·도서·부차', 배가는 '서가 배열 작업'이다.

NoteBase

3. 다음 조건에 모두 해당하는 분류표는?

비십진분류표이면서, 열거식분류표이다.

① CC
② DDC
③ LCC
④ KDC

정답 3번

출제 포인트

이 문제는 분류표를 기호의 구성 원리에 따른 십진식·비십진식과 주제 전개 방식에 따른 열거식·분석합성식으로 구분할 수 있는지를 묻는다.

핵심 개념

십진분류표는 아라비아 숫자를 사용하여 지식을 10개씩 계층적으로 구분하는 분류표이고, 비십진분류표는 이러한 십진 전개 원리를 따르지 않는 분류표이다.
열거식분류표는 예상되는 주제를 분류표에 미리 나열하는 방식이고, 분석합성식분류표는 복합 주제를 여러 패싯으로 분석한 뒤 기호를 합성하는 방식이다.
DDC와 KDC는 십진식·열거식, LCC는 비십진식·열거식, CC는 비십진식·분석합성식에 해당한다.

선지별 해설

① X — CC(Colon Classification)는 비십진분류표이지만 패싯을 분석하여 기호를 합성하는 분석합성식분류표이다. 틀린 표현은 '열거식'이며, 올바르게는 '비십진식·분석합성식분류표'이다.
② X — DDC(Dewey Decimal Classification)는 주제를 미리 열거하는 성격이 있지만 10진법에 따라 전개되는 십진분류표이다. 틀린 표현은 '비십진'이며, 올바르게는 '십진식·열거식분류표'이다.
③ O — LCC(Library of Congress Classification)는 문자와 숫자를 사용하는 비십진식 기호 체계이며, 주제를 분류표에 나열하는 열거식분류표이다. 두 조건을 모두 충족한다.
④ X — KDC(Korean Decimal Classification)는 열거식분류표이지만 명칭과 구조에서 알 수 있듯이 10진법을 사용하는 십진분류표이다. 틀린 표현은 '비십진'이며, 올바르게는 '십진식·열거식분류표'이다.

오답 포인트

한 가지 기준만 확인하면 오답이 된다. ① CC는 비십진식이라는 조건만 맞고 열거식이 아니며, ② DDC와 ④ KDC는 열거식이라는 조건만 맞고 비십진식이 아니다. 두 조건을 동시에 만족하는 것은 ③ LCC뿐이다.

NoteBase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먼저 DDC·KDC는 십진식, CC·LCC는 비십진식으로 나눈다. 다음으로 CC만 분석합성식이고 DDC·KDC·LCC는 열거식으로 구분한다. 두 분류축의 공통 영역을 찾으면 비십진식이면서 열거식인 LCC가 남는다.

암기 포인트

DDC·KDC는 십진식, CC·LCC는 비십진식이며, 이 가운데 CC만 분석합성식이다. 따라서 비십진식·열거식은 LCC이다.

NoteBase

4. 다음 조건에 모두 해당하는 목록규칙을 만든 근대 목록학자는?

- 1841년에 간행됨
- 91개조로 구성됨
- 저자명기본표목이 원칙임
- 성경에 대한 통일표목을 인정함

① 제위트
② 커터
③ 파니찌
④ 린더펠트

정답 3번

출제 포인트

목록규칙의 연도·규칙 수·기본표목 원칙을 목록학자와 연결하는 문제이다.

핵심 정리

파니찌: 1841년 영국박물관 목록을 위해 간행된 91개 규칙과 연결되며, 저자명기본표목을 원칙으로 하고 성경에 통일표목을 인정하였다.
제위트: 스미스소니언 도서관의 종합목록 구상과 1852년 목록규칙으로 대표된다.
커터: 1876년 『Rules for a Printed Dictionary Catalogue』를 통해 사전체목록의 목적과 규칙을 체계화하였다.
린더펠트: 1890년 『Eclectic Card Catalog Rules』와 연결된다.

선지별 해설

① X — 제위트는 1852년 스미스소니언의 종합목록 구상과 목록규칙에 해당하므로 '1841년·91개 규칙'과 연결되지 않는다. 틀린 연결은 '제위트'이며, 올바르게는 '파니찌'이다.
② X — 커터의 대표 목록규칙은 1876년의 사전체목록규칙이므로 제시된 연도와 규칙 수에 맞지 않는다. 틀린 연결은 '커터'이며, 올바르게는 '파니찌'이다.
③ O — 파니찌의 91개 규칙은 1841년에 간행되었고, 저자명기본표목을 원칙으로 하면서 성경에 대한 통일표목을 인정하였으므로 모든 조건에 부합한다.
④ X — 린더펠트는 1890년의 절충식 카드목록규칙과 연결되므로 '1841년·91개 규칙'의 제정자가 아니다. 틀린 연결은 '린더펠트'이며, 올바르게는 '파니찌'이다.

NoteBase

출제자가 노린 함정

네 사람 모두 목록규칙의 역사와 관련되므로 이름만 익숙하게 기억하면 혼동하기 쉽다. 이 문항에서는 특히 ‘1841년’과 ‘91개’가 파니찌를 확정하는 결정적 단서이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연도와 규칙명을 먼저 짝지어 판단한다. 1841년·91개 규칙은 파니찌, 1852년 스미스소니언 규칙은 제위트, 1876년 사전체목록규칙은 커터, 1890년 절충식 카드목록규칙은 린더펠트로 연결한다.

암기 포인트

파니찌 = 1841년 = 91개 규칙 = 저자명기본표목·성경 통일표목이다.

NoteBase

5. 목록조직의 맥락과 원리를 이해하기 위한 범주와 그 내용을 연결한 것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개념모형 - FRAD, FRSAD, LRM
② 목록원칙 - ICP, ICCP, ISBD
③ 목록규칙 - KCR, AACR2, RDA
④ 인코딩 형식 - MODS, DC, BIBFRAME

정답 2번

출제 포인트

목록조직을 이루는 개념모형, 목록원칙, 목록규칙, 인코딩 형식을 각각의 대표 표준·도구와 구분할 수 있는지를 묻는 문제이다.

핵심 개념

개념모형: 서지 세계의 개체·속성·관계를 추상적으로 구조화한 틀이며 FRAD, FRSAD, LRM 등이 해당한다.
목록원칙: 목록규칙을 만들고 적용할 때 따르는 상위 지침이며 ICP와 파리원칙을 도출한 ICCP 등이 관련된다.
목록규칙: 실제 표목 선정과 자원 기술 등 목록 작성 방법을 정한 규칙이며 KCR, AACR2, RDA가 해당한다.
인코딩 형식: 서지·메타데이터를 기계가 처리할 수 있도록 구조화해 표현하는 형식이나 프레임워크이며 MODS, DC, BIBFRAME 등이 해당한다.
ISBD는 목록원칙이 아니라 서지사항의 요소와 배열·구두점 등을 표준화한 국제표준서지기술이다.

선지별 해설

① O — FRAD는 전거데이터, FRSAD는 주제전거데이터를 위한 개념모형이고, LRM은 기능요건 계열을 통합한 도서관 참조모형이므로 개념모형 범주에 맞는다.
② X — 틀린 표현은 목록원칙의 예로 제시한 'ISBD'이다. ICP는 국제목록원칙이며 ICCP는 파리원칙이 도출된 국제목록원칙회의로 목록원칙의 형성 맥락에 해당하지만, ISBD는 국제표준서지기술이다. 따라서 올바르게는 'ISBD는 목록원칙이 아니라 서지기술 표준이다'라고 해야 한다.
③ O — KCR은 한국목록규칙, AACR2는 영미목록규칙 제2판, RDA는 자원 기술과 접근을 위한 표준이므로 실제 목록 작성에 적용되는 목록규칙 범주에 맞는다.
④ O — MODS와 DC는 서지·메타데이터를 구조화해 표현하고, BIBFRAME은 서지데이터를 연결데이터 방식으로 표현하는 프레임워크이므로 문항의 인코딩 형식 범주에 맞는다.

오답 포인트

ISBD도 국제적으로 널리 쓰이는 목록 관련 표준이어서 ICP와 같은 목록원칙으로 오인하기 쉽다. 그러나 '원칙'은 목록규칙의 방향을 제시하고, ISBD는 서지사항을 어떤 요소와 순서로 기술할지를 표준화한다는 점이 다르다.

NoteBase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각 약어가 무엇을 하는지로 구분한다. 개체·관계의 추상적 틀이면 개념모형, 목록 작성의 상위 방향이면 목록원칙, 실제 기술·접근 규정이면 목록규칙, 데이터를 기계 처리 가능한 구조로 표현하면 인코딩 형식으로 판단한다. ISBD는 서지기술 표준으로 별도 구분한다.

암기 포인트

FRAD·FRSAD·LRM은 모형, ICP는 원칙, KCR·AACR2·RDA는 규칙, MODS·DC·BIBFRAME은 표현 형식이며 ISBD는 서지기술 표준이다.

NoteBase

6. KORMARC 필드와 MODS 요소를 연결한 것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KORMARC 필드	MODS 요소
①	260	originInfo
②	020, 022	identifier
③	300	location
④	245	titleInfo, name

정답 3번

출제 포인트

KORMARC의 각 필드가 MODS의 어떤 요소로 변환되는지를 묻는 문제이다. 문두가 '적절하지 않은 것'을 요구하므로 대응 관계가 틀린 선지를 찾는다.

핵심 개념

KORMARC는 서지정보를 필드 번호와 식별기호로 표현하고, MODS는 같은 정보를 의미 중심의 요소명으로 표현한다. 따라서 번호를 기계적으로 외우기보다 각 필드가 담는 정보의 의미를 기준으로 연결해야 한다. 260은 발행 정보, 020·022는 표준식별번호, 300은 형태사항, 245는 표제와 책임표시를 담는다.

선지별 해설

① O — KORMARC 260 필드는 발행지, 발행처, 발행년 등의 발행 정보를 기록하므로 MODS의 originInfo 요소에 대응한다.
② O — KORMARC 020 필드는 ISBN, 022 필드는 ISSN을 기록하므로 MODS의 identifier 요소에 대응한다.
③ X — KORMARC 300 필드는 페이지 수, 삽화, 크기 등 자료의 형태사항을 기록하므로 MODS의 location이 아니라 physicalDescription 요소에 대응한다. 틀린 대응 '300 → location'은 '300 → physicalDescription'으로 고쳐야 한다.
④ O — KORMARC 245 필드는 표제와 책임표시를 기록한다. 표제 정보는 MODS의 titleInfo, 책임표시에 나타난 저자 등의 명칭 정보는 name 요소에 대응할 수 있다.

오답 포인트

③의 location을 자료의 물리적 크기나 형태를 나타내는 말로 오해하기 쉽다. MODS의 location은 자료의 소재·접근 위치에 관한 요소이고, 페이지 수·삽화·크기 같은 형태사항은 physicalDescription에 기록한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KORMARC 필드가 담는 정보의 의미를 먼저 우리말로 바꾼 뒤 MODS 요소명과 연결한다. 발행 정보는 originInfo, 표준번호는 identifier, 형태사항은 physicalDescription, 표제는 titleInfo로 판단한다.

NoteBase

암기 포인트

260은 발행(originInfo), 020·022는 번호(identifier), 300은 형태(physicalDescription), 245는 표제·책임(titleInfo·name)이다.

NoteBase

7. KORMARC에서 별도 필드로 생성되어 입력할 수 있는 분류기호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DDC
② KDC
③ NDC
④ UDC

정답 3번

출제 포인트

KORMARC 통합서지용에서 주요 십진분류법에 전용 필드가 마련되어 있는지를 구별하는 문제이다.

핵심 개념

KDC(한국십진분류법)는 056 필드, UDC(국제십진분류법)는 080 필드, DDC(듀이십진분류법)는 082 필드에 각각 입력한다. NDC(일본십진분류법)는 독립된 전용 필드가 없으며 085 기타 분류기호 필드에 제1지시기호 1을 사용하여 입력한다.

선지별 해설

① O — DDC는 082 듀이십진분류기호 필드가 별도로 마련되어 있으므로 적절하다.
② O — KDC는 056 한국십진분류기호 필드가 별도로 마련되어 있으므로 적절하다.
③ X — NDC가 독립된 전용 필드에 입력된다는 판단이 틀리다. 올바르게는 NDC를 085 기타 분류기호 필드에 제1지시기호 1로 입력한다.
④ O — UDC는 080 국제십진분류기호 필드가 별도로 마련되어 있으므로 적절하다.

오답 포인트

NDC도 널리 알려진 십진분류법이므로 DDC·KDC·UDC처럼 전용 필드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기 쉽다. 그러나 선지의 핵심은 분류법의 존재 여부가 아니라 KORMARC에서 독립된 필드가 부여되었는지 여부이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분류법 이름을 필드 번호와 연결한다. 056은 KDC, 080은 UDC, 082는 DDC이고, 이들처럼 별도 규정된 필드가 없는 NDC는 085 기타 분류기호로 처리한다.

암기 포인트

KDC 056, UDC 080, DDC 082는 전용 필드이고 NDC는 085 기타 분류기호이다.

NoteBase

8. 조선총독부도서관분류표와 조선십진분류표(KDCP)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① 모두 한국인이 편찬하였다.
② 모두 십진식 분류도구이다.
③ 모두 광복 이후 만들어졌다.
④ 모두 주류가 DDC와 일치한다.

정답 2번

출제 포인트

조선총독부도서관분류표와 조선십진분류표(KDCP)의 편찬 주체, 성립 시기, 십진식 여부, DDC 주류와의 관계를 비교하는 문제이다.

핵심 개념

조선총독부도서관분류표: 일제강점기 조선총독부도서관이 편찬·사용한 십진식 분류표이다.
신서부·고서부·양서부용 분류표로 나뉘며, 주류 배열은 DDC와 일치하지 않는다.
조선십진분류표(KDCP): 한국인 박봉석이 광복 후인 1947년에 편찬한 십진식 분류표이다. 한국의 실정에 맞게 전개되었으며, 주류는 DDC와 일치한다.
공통점은 십진식이라는 점이고, 차이점은 편찬 주체·성립 시기·DDC 주류와의 일치 여부이다.

선지별 해설

① X — '모두 한국인이 편찬하였다'가 틀리다. 조선총독부도서관분류표는 일제강점기 조선총독부도서관이 편찬·사용한 분류표이고, KDCP는 한국인 박봉석이 편찬하였다. 올바르게는 'KDCP는 한국인이 편찬하였다'이다.
② O — 두 분류표 모두 지식을 10개씩 단계적으로 나누는 십진식 분류도구이다.
③ X — '모두 광복 이후 만들어졌다'가 틀리다. 조선총독부도서관분류표는 일제강점기에 만들어졌고, KDCP는 광복 후인 1947년에 만들어졌다. 올바르게는 'KDCP만 광복 이후에 만들어졌다'이다.
④ X — '모두 주류가 DDC와 일치한다'가 틀리다. KDCP의 주류는 DDC와 일치하지만 조선총독부도서관분류표의 주류는 DDC와 일치하지 않는다. 올바르게는 'KDCP의 주류가 DDC와 일치한다'이다.

오답 포인트

두 분류표가 모두 십진식이라는 공통점 때문에 편찬 주체, 성립 시기, DDC와의 관계까지 같다고 확대하여 판단하기 쉽다. 특히 ④에서는 '십진식'과 'DDC 주류 일치'를 같은 뜻으로 보는 것이 함정이다.

NoteBase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분류표 비교 문제에서는 '누가 편찬했는가 → 언제 만들어졌는가 → 십진식인가 → 주류가 DDC와 일치하는가'를 각각 분리해 확인한다. 십진식을 채택했다는 사실만으로 DDC와 주류까지 같다고 판단하지 않는다.

암기 포인트

공통점은 십진식이다. KDCP는 박봉석·1947년·DDC 주류 일치, 조선총독부도서관분류표는 일제강점기·DDC 주류 불일치로 묶어 기억한다.

NoteBase

9. IFLA의 LRM(Library Reference Model)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FRBR에서 정의한 저작, 표현형, 구현형, 개별 자료 등의 개념과 4계층 구조를 그대로 취하고 있다.
   ② 레(Res)는 FRSAD의 '테마'가 흡수된 것으로, LRM의 다른 모든 개체의 최상위 개념으로 설정되어 있다.
   ③ 행위자(Agent)는 의도적으로 행동을 할 수 있고, 권한을 부여받아 그 행동에 책임을 질 수 있는 개체를 의미한다.
   ④ 노멘(Nomen)은 개체와 이 개체를 지칭하는 명칭과의 연계를 의미하며 FRSAD의 '노멘'과 FRAD의 개체인 '제어형 접근점', '이름', '식별자', '규칙'이 LRM에 흡수되었다.

정답 4번

출제 포인트

IFLA LRM이 FRBR·FRAD·FRSAD의 개체를 통합하면서 유지·일반화·제외한 내용을 구분하는 문제이다.

핵심 개념

IFLA LRM: FRBR, FRAD, FRSAD를 하나로 통합한 서지정보 개념모형이다.
Res: LRM의 다른 모든 개체를 포괄하는 최상위 개체이다.
Agent: 의도적으로 행동하고 권리를 부여받으며 그 행동에 책임을 질 수 있는 개체이다.
Nomen: 어떤 개체와 그 개체를 지칭하는 명칭 사이의 연계이다. FRAD의 Name과 FRSAD의 Nomen이 통합되었고, Identifier와 Controlled Access Point는 Nomen의 유형으로 볼 수 있다. 반면 FRAD의 Rules와 Agency는 LRM의 기능적 범위에서 제외되었다.

NoteBase

선지별 해설

① O — LRM은 FRBR의 저작(Work)·표현형(Expression)·구현형(Manifestation)·개별자료(Item), 즉 WEMI의 핵심 개념과 4계층 구조를 이어받는다.

② O — FRSAD의 Thema가 담당하던 포괄적 주제 대상은 LRM에서 최상위 개체인 Res로 일반화되며, Res는 명시된 다른 모든 개체의 상위 개념이다.

③ O — Agent는 의도적으로 행동할 수 있고, 권리를 부여받으며, 그 행동에 책임을 질 수 있는 개체를 뜻한다. 선지의 설명은 LRM의 Agent 개념에 부합한다.

④ X — 틀린 표현은 FRAD의 ‘Rules’까지 Nomen에 흡수되었다는 부분이다. 올바르게는 FRAD의 Name과 FRSAD의 Nomen이 LRM의 Nomen으로 통합되고, Identifier와 Controlled Access Point는 Nomen의 유형으로 볼 수 있지만, Rules와 Agency는 LRM의 기능적 범위에서 제외되었다.

오답 포인트

④는 Nomen의 정의 자체는 맞게 제시한 뒤, Nomen에 통합된 항목에 ‘Rules’를 끼워 넣었다. Name·Identifier·Controlled Access Point와 Rules의 처리 방식이 다르다는 점이 함정이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LRM 통합 문제에서는 WEMI는 유지, Thema는 Res로 일반화, Name과 Nomen은 Nomen으로 통합, Identifier와 Controlled Access Point는 Nomen의 유형, Rules와 Agency는 기능적 범위 밖이라는 대응 관계로 판단한다.

암기 포인트

WEMI는 유지되고, Thema는 Res로, Name은 Nomen으로 통합되며, Rules와 Agency는 제외된다.

NoteBase

10. KCR4에 따른, 아래 조건의 발행 연도 표기 방법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다권본 - 1권은 1992년에 발행 - 2권은 발행 연도, 판권 연도, 서·발·후기 등의 날짜 표시가 없으나 1995년으로 추정됨

① 1992-1995
② 1992, c1995
③ [1992-1995사이]
④ 1992-[1995?]

정답 4번

출제 포인트

다권본의 발행 연도 범위에서 자료에 표시된 확정 연도와 목록자가 추정한 연도를 구별하여 기술하는 방법을 묻는 문제이다.

핵심 개념

다권본의 발행이 여러 해에 걸치면 최초 발행 연도와 최종 발행 연도를 붙임표로 연결한다. 자료 자체에 없는 연도를 추정하여 보충할 때에는 그 연도만 각괄호로 묶고, 추정임을 나타내는 물음표를 붙인다. 따라서 확인된 최초 연도 1992와 추정한 최종 연도 1995는 1992-[1995?]로 기술한다.

선지별 해설

① X — 1992-1995는 두 연도가 모두 확정된 것처럼 보이므로 틀리다. 1995년은 추정한 연도이므로 올바르게는 1992-[1995?]이다.
② X — c1995의 c는 판권 연도를 나타내는 표지이므로 추정 발행 연도에 사용할 수 없다. 올바르게는 추정 연도를 [1995?]로 표시하여 1992-[1995?]로 기술한다.
③ X — [1992-1995사이]는 확인된 1992년까지 각괄호 안에 넣고 추정 범위를 문구로 적었으므로 틀리다. 올바르게는 확인된 1992는 각괄호 밖에 두고 추정한 1995만 [1995?]로 기술한다.
④ O — 1992는 제1권에 표시된 확정 연도이고, [1995?]는 목록자가 추정한 제2권의 발행 연도이므로 1992-[1995?]가 적절하다.

오답 포인트

1995년이 단순한 최종 연도인지, 판권 연도인지, 추정한 연도인지 혼동하기 쉽다. 이 문항에서는 '1995년으로 추정됨'이 핵심이므로 1995에 각괄호와 물음표가 모두 필요하다.

NoteBase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먼저 각 연도가 자료에 실제로 표시되었는지 확인한다. 표시된 연도는 그대로 쓰고, 표시 없이 추정한 연도만 [연도?] 형식으로 적은 뒤 다권본의 시작 연도와 끝 연도를 붙임표로 연결한다.

암기 포인트

확정 연도는 그대로, 추정 연도는 [연도?]이다.

NoteBase

11. 아래 도서기호법 중 열거식 저자기호법에 해당하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

㉠ 이춘희 동서저자기호표
㉡ 올린(C.R. Olin) 저자기호표
㉢ 리재철 한글순도서기호법
㉣ LCC 저자기호법
㉤ 메릴(W.S. Merrill) 저자기호표
㉥ 정필모 한국문헌기호표

① ㉠, ㉡, ㉢, ㉤ ② ㉠, ㉡, ㉣, ㉤
③ ㉡, ㉢, ㉣, ㉥ ④ ㉠, ㉡, ㉤, ㉥

정답 4번

출제 포인트

저자명을 표에 미리 나열해 기호를 찾는 열거식 저자기호법과, 정해진 규칙에 따라 문자와 숫자를 조합하는 분석합성식 저자기호법을 구별하는 문제이다.

핵심 정리

열거식은 저자명을 미리 열거하고 각 저자명에 대응하는 기호를 표에서 찾아 부여하는 방식이다. 이에 해당하는 것은 ㄱ 이춘희의 동서저자기호표, ㄴ 올린(C.R. Olin) 저자기호표, ㅁ 메릴(W.S. Merrill) 저자기호표, ㅂ 정필모의 한국문헌기호표이다.
분석합성식은 대상어의 문자 요소를 분석한 뒤 정해진 기호화 규칙에 따라 기호를 합성하는 방식이다. ㄷ 리재철의 한글순도서기호법과 ㄹ LCC 저자기호법이 이에 해당한다.

선지별 해설

① X — ㄷ 리재철 한글순도서기호법은 열거식이 아니라 분석합성식이고, 열거식인 ㅂ 정필모 한국문헌기호표가 빠져 있다. 올바르게는 ㄱ, ㄴ, ㅁ, ㅂ이다.
② X — ㄹ LCC 저자기호법은 열거식이 아니라 분석합성식이고, 열거식인 ㅂ 정필모 한국문헌기호표가 빠져 있다. 올바르게는 ㄱ, ㄴ, ㅁ, ㅂ이다.
③ X — ㄷ 리재철 한글순도서기호법과 ㄹ LCC 저자기호법은 분석합성식이며, 열거식인 ㄱ 이춘희 동서저자기호표와 ㅁ 메릴 저자기호표가 빠져 있다. 올바르게는 ㄱ, ㄴ, ㅁ, ㅂ이다.
④ O — ㄱ 이춘희 동서저자기호표, ㄴ 올린 저자기호표, ㅁ 메릴 저자기호표, ㅂ 정필모 한국문헌기호표는 모두 열거식 저자기호법이다.

NoteBase

출제자가 노린 함정

명칭에 '기호표' 또는 '기호법'이 들어간다는 점만 보고 같은 방식으로 묶는 것이 함정이다. 특히 ㄷ과 ㄹ은 기호를 표에서 완성형으로 찾는 열거식이 아니라 요소를 분석하여 조합하는 분석합성식이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저자명이 표에 미리 나열되어 있고 대응 기호를 찾아 쓰면 열거식, 대상어의 문자 요소를 규칙에 따라 숫자 등으로 바꾸어 조합하면 분석합성식으로 판단한다. 이 구분을 적용하면 ㄷ과 ㄹ을 제외한 ㄱ, ㄴ, ㅁ, ㅂ이 남는다.

암기 포인트

열거식은 이춘희·올린·메릴·정필모, 분석합성식은 리재철 한글순도서기호법·LCC 저자기호법이다.

NoteBase

12. 커터 - 샌본 세자리 저자기호표에 따라 아래 도서의 도서기호를 작성한 것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서명: "The Voice of the Era: A Biography of Chris Cornell" 저자명: John Boyle

① B792v ② C814v
③ B792c ④ C814b

정답 4번

출제 포인트

커터-샌본 세 자리 저자기호표로 전기서의 도서기호를 만들 때, 피전기자와 전기 저자의 이름을 어떤 순서로 반영하는지를 묻는 문제이다.

핵심 개념

일반 저작은 기본표목이 되는 저자의 성에 대응하는 저자기호를 사용하고, 같은 저자 아래의 저작을 구별하기 위해 서명의 첫 글자를 저작기호로 덧붙인다. 그러나 전기서는 피전기자의 성에 대응하는 저자기호를 먼저 쓰고, 전기를 쓴 저자의 성 첫 글자를 소문자로 덧붙인다. 따라서 Chris Cornell의 성 Cornell에 해당하는 C814 뒤에 전기 저자 Boyle의 첫 글자 b를 붙여 C814b가 된다.

선지별 해설

① X — B792v는 저자 Boyle의 저자기호 B792에 서명 Voice의 첫 글자 v를 붙인 형태이다. 틀린 부분은 전기서를 일반 저작처럼 Boyle을 기준으로 삼은 것이다. 올바르게는 피전기자 Cornell의 C814에 전기 저자 Boyle의 첫 글자 b를 붙인 C814b이다.
② X — C814v는 피전기자 Cornell의 저자기호 C814까지는 맞지만, 뒤에 서명 Voice의 첫 글자 v를 붙인 것이 틀리다. 올바르게는 전기 저자 Boyle의 첫 글자 b를 붙여 C814b로 작성한다.
③ X — B792c는 전기 저자 Boyle의 저자기호 B792를 먼저 둔 것이 틀리다. 올바르게는 피전기자 Cornell의 저자기호 C814를 먼저 두고 Boyle의 첫 글자 b를 덧붙여 C814b로 작성한다.
④ O — Chris Cornell이 피전기자이므로 Cornell의 저자기호 C814를 기본으로 하고, 전기 저자 John Boyle의 성 첫 글자 b를 덧붙인 C814b가 적절하다.

오답 포인트

서명에 Voice가 보인다는 이유로 v를 붙이거나, 표지에 표시된 저자 Boyle을 일반 저작의 저자처럼 먼저 기호화하기 쉽다. 이 문항의 결정적 표현은 A Biography of Chris Cornell이며, 전기서는 피전기자를 먼저 기호화한다.

NoteBase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서명에서 biography, life 등의 표현으로 전기서임을 확인한 뒤, 피전기자의 성에 해당하는 커터-샌본 기호를 찾고 전기 저자의 성 첫 글자를 소문자로 덧붙인다.

암기 포인트

전기서 도서기호는 '피전기자 기호 + 전기 저자 성의 첫 글자'이다. Cornell + Boyle이므로 C814b이다.

NoteBase

13. RDA(Resource Description and Access)의 특성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RDA에서는 표목이라는 말을 대신하여 접근점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다. 그러나 종래의 통일표목에 상당하는 '전거형접근점'과 참고에 상당하는 '이형접근점'에 의해 기본표목의 개념은 유지하고 있다.

② 매체유형(media type)은 자원의 내용 감상, 재생, 운영 등을 위해 필요한 일반적인 중개장치의 유형을 반영하고 있다. MARC 21에서는 매체유형을 337필드에 기술한다. 매체유형은 총 8종으로 구성되며, 오디오, 컴퓨터, 마이크로폼, 현미경 슬라이드 등이 포함된다.

③ 수록매체유형(carrier type)은 자원의 내용 감상, 재생, 운영 등을 하는데 필요한 중개장치의 유형과 결합하여 저장매체와 수록형식을 반영하고 있다. MARC 21에서는 수록매체유형을 338 필드에 기술한다. 수록매체유형은 총 48종으로 구성되며, 사운드트랙릴, 카드, 볼륨 등이 포함된다.

④ 내용유형(content type)은 표현된 내용과 인간의 지각을 통해 그것을 인지하는 커뮤니케이션의 기본적인 형식을 반영하고 있다. MARC 21에서는 내용유형을 336 필드에 기술한다. 내용유형은 총 9개 영역으로 구분되어 23종으로 구성되며, 9개 영역 안에는 지도, 악보, 정지화상, 텍스트, 동화상 등이 포함된다.

정답 2번

출제 포인트

RDA의 접근점 용어와 내용유형·매체유형·수록매체유형의 구분, 그리고 각 유형에 대응하는 MARC 21 필드를 묻는 문제이다.

NoteBase

핵심 개념

내용유형(content type)은 자원의 내용이 어떤 표현 형식으로 구현되었는지를 나타내며 MARC 21의 336 필드에 기술한다.
매체유형(media type)은 그 내용을 이용하는 데 일반적으로 필요한 중개 장치의 유형을 나타내며 MARC 21의 337 필드에 기술한다.
수록매체유형(carrier type)은 내용이 저장된 매체와 그 수록 형식을 중개 장치의 유형과 결합하여 나타내며 MARC 21의 338 필드에 기술한다.
핵심 대응은 내용유형-336, 매체유형-337, 수록매체유형-338이다.

선지별 해설

① O — RDA는 '표목' 대신 '접근점'이라는 용어를 사용한다. 전거형접근점과 이형접근점의 구별을 통해 종래의 기본표목과 참조에 대응하는 기능적 개념도 이어진다.
② X — 매체유형을 MARC 21의 337 필드에 기술하고 8종으로 구분한다는 부분은 맞지만, '슬라이드가 매체유형에 포함된다'는 표현이 틀렸다. 슬라이드는 특정한 물리적 수록 형식을 나타내는 수록매체유형이다. 올바르게는 매체유형의 예로 오디오, 컴퓨터, 마이크로폼, 현미경, 투사, 입체영상, 무매개, 비디오를 제시해야 한다.
③ O — 수록매체유형은 저장 매체와 수록 형식을 반영하며 MARC 21의 338 필드에 기술한다. 사운드트랙릴, 카드, 볼륨은 수록매체유형의 예에 해당한다.
④ O — 내용유형은 표현된 내용과 그것을 인지하는 기본 형식을 나타내며 MARC 21의 336 필드에 기술한다. 9개 영역 아래 23종으로 구성되고 지도, 악보, 정지화상, 텍스트, 동화상 등이 포함된다는 설명은 적절하다.

오답 포인트

②는 337 필드와 8종이라는 맞는 정보 사이에 '슬라이드'를 끼워 넣었다. 슬라이드를 투사 장치를 이용한다는 이유로 매체유형으로 판단하기 쉽지만, '투사(projected)'는 매체유형이고 '슬라이드'는 구체적인 수록매체유형이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무엇을 표현했는지는 내용유형, 어떤 장치로 이용하는지는 매체유형, 무엇에 어떤 형식으로 담겼는지는 수록매체유형으로 구분한다. 이어서 MARC 21 필드를 336-337-338 순서로 대응한다.

암기 포인트

내용-매체-수록매체는 336-337-338이고, '투사'는 매체유형이지만 '슬라이드'는 수록매체유형이다.

NoteBase

14. MODS의 상위요소와 함께 사용할 하위요소를 연결한 것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name> - alternativeName ; affiliation ; role
② <originInfo> - publisher ; issuance ; frequency
③ <subject> - topic ; geographic ; temporal
④ <physicalDescription> - form ; extent ; edition

정답 4번

출제 포인트

MODS의 상위요소가 어떤 정보를 담는지와 각 상위요소에 속하는 하위요소를 정확히 연결하는 문제이다.

핵심 개념

<name>은 자원과 관련된 개인·단체 등의 이름 정보를 담으며 alternativeName, affiliation, role 등을 하위요소로 둔다.
<originInfo>는 자원의 발행·생성·간행에 관한 정보를 담으며 publisher, edition, issuance, frequency 등을 하위요소로 둔다.
<subject>는 자원의 주제 내용을 담으며 topic, geographic, temporal 등을 하위요소로 둔다.
<physicalDescription>은 자원의 물리적 특성을 담으며 form, extent 등을 하위요소로 두지만 edition은 포함하지 않는다.

선지별 해설

① O — <name> 아래에는 대체 이름을 나타내는 <alternativeName>, 소속을 나타내는 <affiliation>, 자원과 이름 간의 역할을 나타내는 <role>이 올 수 있으므로 적절하다.
② O — <originInfo> 아래에는 발행자를 나타내는 <publisher>, 자원의 간행 방식을 나타내는 <issuance>, 간행 빈도를 나타내는 <frequency>가 올 수 있으므로 적절하다.
③ O — <subject> 아래에는 일반 주제를 나타내는 <topic>, 지리적 주제를 나타내는 <geographic>, 시간적 주제를 나타내는 <temporal>이 올 수 있으므로 적절하다.
④ X — <physicalDescription>의 <form>과 <extent>는 물리적 형태와 수량·크기를 기술하는 하위요소이지만, <edition>은 판이나 버전 정보를 나타내므로 여기에 속하지 않는다. 틀린 연결은 '<physicalDescription> - edition'이며, 올바르게는 '<originInfo> - edition'이다.

오답 포인트

④의 edition을 책의 외형이나 물리적 형태에 관한 정보로 보아 <physicalDescription>에 연결하기 쉽다. 그러나 판·버전 정보는 발행·생성 정보에 해당하므로 <originInfo>에 둔다.

NoteBase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하위요소의 영문 뜻을 먼저 기능별로 분류한다. 이름·소속·역할은 <name>, 발행자·판·간행 형태·간행 빈도는 <originInfo>, 주제의 내용·장소·시간은 <subject>, 물리적 형태·수량은 <physicalDescription>으로 연결한다.

암기 포인트

판(edition)은 외형(physicalDescription)이 아니라 발행 정보(originInfo)이다.

NoteBase

15. KDC 제6판에 근거하였을 때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단, 별법에 따른 적용도 옳은 것으로 간주한다.)

ㄱ. 이탈리아어-한국어사전 → 713.8
ㄴ. 이탈리아어-한국어사전 → 783.1
ㄷ. 한국어-이탈리아어사전 → 713.8
ㄹ. 한국어-이탈리아어사전 → 783.1

① ㄱ, ㄴ, ㄷ
② ㄱ, ㄴ, ㄹ
③ ㄱ, ㄷ, ㄹ
④ ㄱ, ㄴ, ㄷ, ㄹ

정답 4번

출제 포인트

KDC 제6판에서 이탈리아어와 한국어 사이의 양국어사전을 본표의 분류와 별법에 따라 각각 어떻게 분류하는지를 묻는 문제이다.

핵심 개념

713.8은 한국어 사전 아래에서 이탈리아어와 관련된 양국어사전을 나타내고, 783.1은 이탈리아어 사전 아래에서 한국어와 관련된 양국어사전을 나타낸다. 따라서 한국어→이탈리아어사전은 713.8, 이탈리아어→한국어사전은 783.1로 분류할 수 있다. 또한 문제의 단서처럼 별법 적용도 옳은 것으로 보면, 표제어 언어가 아니라 대응 언어 쪽에 두는 분류도 허용되므로 두 방향의 사전 모두 713.8과 783.1에 각각 분류할 수 있다.

선지별 해설

① X — ㄱ·ㄴ·ㄷ은 모두 옳지만 ㄹ도 옳다. 이탈리아어→한국어사전은 본표에 따라 783.1로 분류할 수 있고, 별법에 따라 713.8로도 분류할 수 있다. 한국어→이탈리아어사전 역시 본표에 따라 713.8, 별법에 따라 783.1로 분류할 수 있다. 빠진 ㄹ을 포함한 'ㄱ, ㄴ, ㄷ, ㄹ'이 올바른 조합이다.
② X — ㄱ·ㄴ·ㄹ은 모두 옳지만 ㄷ도 옳다. 한국어→이탈리아어사전을 한국어 사전 아래의 713.8에 분류하는 것은 본표에 따른 분류이다. 빠진 ㄷ을 포함한 'ㄱ, ㄴ, ㄷ, ㄹ'이 올바른 조합이다.
③ X — ㄱ·ㄷ·ㄹ은 모두 옳지만 ㄴ도 옳다. 이탈리아어→한국어사전을 이탈리아어 사전 아래의 783.1에 분류하는 것은 본표에 따른 분류이다. 빠진 ㄴ을 포함한 'ㄱ, ㄴ, ㄷ, ㄹ'이 올바른 조합이다.
④ O — ㄱ과 ㄴ은 이탈리아어→한국어사전을 별법과 본표에 따라 각각 713.8과 783.1로 분류한 것이고, ㄷ과 ㄹ은 한국어→이탈리아어사전을 본표와 별법에 따라 각각 713.8과 783.1로 분류한 것이다. 네 항목이 모두 옳다.

NoteBase

오답 포인트

화살표 앞의 언어만 보고 분류기호를 하나로 고정하면 ㄱ이나 ㄹ을 틀렸다고 판단하기 쉽다. 그러나 문두에서 별법에 따른 적용도 옳다고 명시했으므로, 각 사전 방향에 본표와 별법의 두 분류가 모두 성립한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먼저 713.8을 '한국어 사전 쪽의 이탈리아어 관계', 783.1을 '이탈리아어 사전 쪽의 한국어 관계'로 대응시킨다. 이어서 별법 인정 단서가 있으면 사전의 두 언어 가운데 어느 쪽을 기준으로 둔 분류인지 확인하여 두 기호를 모두 검토한다.

암기 포인트

한→이는 713.8, 이→한은 783.1이 기본이며, 별법까지 인정하면 두 방향 모두 두 기호가 가능하다.

NoteBase

16. 국립중앙도서관 주제명표목표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전 주제를 망라한 전문용어가 상세한 수준으로 구축된다. 우선어는 서지데이터에 부여되어 주제명표목으로 사용할 수 있으며, 나머지 용어는 비우선어가 된다.

② 주제명표목의 기술과 작성은 한국문헌자동화목록형식(KORMARC) 통합서지용과 한국목록규칙(KCR) 제4판을 준용하고 있다.

③ 자료의 전체 내용을 가장 잘 표현하는 주제명이나 자료의 가장 중요한 주제에 대한 주제명을 선택하여 부여한다. 가장 중요한 주제를 판단하기 어렵다면 해당 자료에서 최소한 20% 이상을 다룬 주제를 주제명으로 채택한다.

④ 해당 자료의 주제명으로 가장 적당한 용어를 찾아 가급적 3개 이내로 주제명을 부여하되 시소러스형 후조합 색인임을 감안하여 필요에 따라 주제명을 여러 개 부여할 수 있다.

정답 2번

출제 포인트

국립중앙도서관 주제명표목표의 성격, 기술 형식, 주제명 선정 원칙과 부여 개수를 구분하는 문제이다.

핵심 개념

국립중앙도서관 주제명표목표는 자료의 주제 접근을 위해 주제어를 통제하는 시소러스형 통제어휘이다. 우선어는 실제 주제명표목으로 사용하고 비우선어는 우선어로 안내하며, 주제명 전거데이터의 기술에는 KORMARC 전거통제용 형식을 적용한다.

NoteBase

선지별 해설

① O — 전 주제를 포괄하는 전문용어를 상세한 수준으로 구축하며, 우선어는 주제명표목으로 사용할 수 있고 나머지 용어는 비우선어가 된다.

② X — 틀린 표현은 ‘KORMARC 통합서지용’이다. 주제명표목의 기술과 작성에는 KORMARC 전거통제용과 한국목록규칙(KCR) 제4판을 준용한다. 통합서지용은 자료의 서지레코드를 기술하는 형식이므로 주제명 전거레코드의 기술 형식과 구별해야 한다.

③ O — 자료 전체를 가장 잘 나타내거나 가장 중요한 주제의 주제명을 선정한다. 가장 중요한 주제를 정하기 어려우면 자료 내용의 최소한 20% 이상을 다룬 주제를 채택한다.

④ O — 해당 자료의 주제를 가장 적절하게 나타내는 용어를 찾아 가급적 3개 이내로 부여한다. 또한 시소러스형 후조합 색인이라는 성격을 고려하여 필요하면 주제명을 여러 개 부여할 수 있다.

오답 포인트

②는 ‘통합서지용’과 ‘전거통제용’을 바꾸어 제시한 선지이다. 주제명이 서지레코드의 검색 접근점으로도 쓰인다는 사실 때문에 통합서지용을 고르기 쉽지만, 주제명표목 자체의 채택형·참조형과 관계를 구축하는 레코드는 전거데이터이므로 전거통제용 형식을 적용한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문장에서 무엇을 기술하는지 먼저 구분한다. 자료 자체의 서지사항이면 통합서지용, 주제명표목의 채택형·비채택형과 상호관계 같은 전거데이터이면 전거통제용으로 판단한다.

암기 포인트

서지자료는 통합서지용, 표목의 통제는 전거통제용이다. 주제명은 핵심 주제·20% 이상·가급적 3개 이내로 기억한다.

NoteBase

17. DDC 제23판에 따라 분류한 결과 분류기호가 빠른 순서대로 나열한 것은? (단, 다른 조건은 모두 동일하다.)

ㄱ. 한국 작가와 체코 작가들의 시 형식 수필 전집
ㄴ. 한국 작가와 아일랜드 작가들의 연설 형식 희곡 전집
ㄷ. 프랑스 작가 1인의 서간문 형식 수필
ㄹ. 스페인 작가 1인의 소설 형식 연설문

① ㄱ → ㄴ → ㄷ → ㄹ
② ㄱ → ㄴ → ㄹ → ㄷ
③ ㄴ → ㄱ → ㄷ → ㄹ
④ ㄷ → ㄹ → ㄴ → ㄱ

정답 1번

출제 포인트

이 문제는 DDC 제23판에서 문학 자료의 언어·문학 범위, 저자 수, 문학 형식을 반영한 분류기호의 배열 순서를 묻는다.

올바른 순서

ㄱ → ㄴ → ㄷ → ㄹ

1. ㄱ — 여러 작가의 복수 문학 전집이라는 조건에서 운문으로 표현된 수필은 시 형식으로 처리한다.
2. ㄴ — 희곡은 연설의 모습을 띠더라도 희곡 형식으로 처리한다. 같은 범위의 전집에서는 시 형식 기호가 희곡 형식 기호보다 앞선다.
3. ㄷ — 프랑스 작가 1인의 작품은 프랑스 문학의 기본번호에 개인 저작용 문학 형식을 적용한다.
4. ㄹ — 스페인 작가 1인의 작품은 스페인 문학의 기본번호에 개인 저작용 문학 형식을 적용한다. 프랑스 문학의 기본번호는 스페인 문학의 기본번호보다 앞선다.

왜 이 순서: ㄱ과 ㄴ은 공통된 저자·문학 범위에서 시와 희곡의 형식 기호 순서가 경계를 만들고, ㄷ과 ㄹ은 개인 저작의 언어별 문학 기본번호에서 프랑스 문학이 스페인 문학보다 앞선다는 점이 경계를 만든다.

NoteBase

선지별 해설

① O — ㄱ의 시 형식이 ㄴ의 희곡 형식보다 먼저 오고, 이어 프랑스 문학의 ㄷ, 스페인 문학의 ㄹ 순으로 배열되므로 맞다.

② X — ㄹ을 ㄷ보다 앞에 둔 부분이 틀리다. 프랑스 문학의 기본번호가 스페인 문학의 기본번호보다 앞선다. 올바르게는 ㄱ → ㄴ → ㄷ → ㄹ이다.

③ X — ㄴ을 ㄱ보다 앞에 둔 부분이 틀리다. 같은 범위의 전집에서는 시 형식 기호가 희곡 형식 기호보다 앞선다. 올바르게는 ㄱ → ㄴ → ㄷ → ㄹ이다.

④ X — ㄷ과 ㄹ을 먼저 배치하고 ㄴ과 ㄱ의 순서도 뒤집은 것이 틀리다. 여러 작가의 복수 문학 전집인 ㄱ·ㄴ이 먼저 오며 그 안에서는 시 형식인 ㄱ이 희곡 형식인 ㄴ보다 앞선다. 올바르게는 ㄱ → ㄴ → ㄷ → ㄹ이다.

오답 포인트

‘시 형식 수필’에서 수필만 보거나 ‘연설 형식 희곡’에서 연설만 보면 ㄱ과 ㄴ의 순서를 뒤집기 쉽다. 또한 ㄷ과 ㄹ은 세부 형식만 비교할 것이 아니라 먼저 프랑스 문학과 스페인 문학의 기본번호 순서를 확인해야 한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문학 분류기호의 순서는 먼저 단일 문학인지 복수 문학인지와 저자 수를 구분하고, 다음으로 언어별 문학 기본번호를 정한 뒤, 마지막으로 실제 표현 형식에 맞는 문학 형식 기호를 적용하여 판단한다. 운문으로 쓰인 다른 형식은 시로, 시나 산문으로 쓰인 희곡은 희곡으로 처리한다.

암기 포인트

복수 문학·저자 범위부터 확인하고, 형식은 시가 희곡보다 앞서며, 언어별 기본번호는 프랑스 문학이 스페인 문학보다 앞선다.

NoteBase

18. KORMARC의 적용 서지형식이 가장 적절하게 연결된 것은?

> ㉠ 모든 형태의 지도로서 책자지도, 낱장지도, 구체 등이 포함됨
> ㉡ 대한제국(1910) 이전에 간인, 필사된 동장본
> ㉢ 평면영사자료, 평면비영사자료, 입체자료 및 실물자료와 키트
> ㉣ 종간을 예정하지 않고 시간적 간격을 두고 발행되는 서지적 자료

	㉠	㉡	㉢	㉣
①	MU	MX	VM	CR
②	MP	RB	VM	CR
③	MP	RB	MX	ER
④	MU	MX	VM	ER

정답 2번

출제 포인트

KORMARC의 적용 서지형식 코드를 자료의 형태와 정확히 연결할 수 있는지를 묻는 문제이다.

핵심 개념

MP는 지도자료, RB는 대한제국(1910) 이전에 간인·필사된 동장본인 고서, VM은 평면영상자료·평면비영상자료·입체자료·실물자료·키트 등의 시청각자료, CR은 종간을 예정하지 않고 시간적 간격을 두고 계속 발행되는 연속간행자료에 적용한다. 따라서 ㉠~㉣은 차례로 MP-RB-VM-CR이다.
혼동하기 쉬운 코드는 MU(악보·음악자료), MX(혼합자료), ER(전자자료)이다.

NoteBase

선지별 해설

① X
㉠의 MU와 ㉡의 MX가 틀렸다. ㉠ 지도자료는 MP, ㉡ 고서는 RB이므로 올바른 연결은 MP-RB-VM-CR이다.

② O
㉠ 지도자료는 MP, ㉡ 고서는 RB, ㉢ 시청각자료는 VM, ㉣ 연속간행자료는 CR이므로 네 연결이 모두 적절하다.

③ X
㉢의 MX와 ㉣의 ER이 틀렸다. ㉢은 시청각자료이므로 VM, ㉣은 연속간행자료이므로 CR이며, 올바른 연결은 MP-RB-VM-CR이다.

④ X
㉠의 MU, ㉡의 MX, ㉣의 ER이 틀렸다. 각각 MP, RB, CR로 고쳐야 하며, ㉢의 VM만 적절하다. 올바른 연결은 MP-RB-VM-CR이다.

오답 포인트

영문 코드의 표면적 인상만으로 고르면 지도자료를 MU, 여러 형태를 포함한다는 이유로 고서를 MX, 계속 발행되는 자료를 ER로 잘못 연결하기 쉽다. 자료의 구체적 정의를 먼저 판별한 뒤 MP·RB·VM·CR을 대응해야 한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지도·고서·시청각·계속 발행이라는 핵심어를 먼저 찾고 각각 MP·RB·VM·CR에 연결한다. 그다음 제시된 한 행의 네 코드가 모두 일치하는지 확인한다.

암기 포인트

지도 MP, 고서 RB, 시청각 VM, 연속간행 CR로 묶어 기억한다.

NoteBase

19. UDC와 CC의 공통점을 모두 고른 것은?

ㄱ. 5개의 패싯을 가짐
ㄴ. 서지분류를 위해 널리 사용됨
ㄷ. 분석합성식 방법을 수용함
ㄹ. 복수·복합주제를 다양한 합성기호를 이용해 하나의 분류기호로 표현 가능함
ㅁ. 본표의 주류가 십진법으로 구성됨

① ㄱ, ㄴ　② ㄴ, ㄷ
③ ㄷ, ㄹ　④ ㄹ, ㅁ

정답 3번

출제 포인트

UDC와 CC의 공통적인 분류 원리와 각 분류법에만 해당하는 특징을 구별하는 문제이다.

핵심 개념

UDC(국제십진분류법)는 DDC의 십진식 체계를 바탕으로 하면서 다양한 보조기호와 관계기호를 사용하여 주제를 합성하는 일반분류표이다.
CC(콜론분류법)는 랑가나단이 제시한 대표적인 분석합성식 분류법으로, 주제를 기본 범주로 분석한 뒤 합성기호로 결합한다.
공통점은 분석합성식 방법을 수용하고, 복수·복합주제를 합성기호로 결합하여 하나의 분류기호로 나타낼 수 있다는 점이다.

선지별 해설

① X — ㄱ과 ㄴ은 두 분류법의 공통점이 아니다. ㄱ의 '5개의 패싯'은 CC의 5개 기본범주 PMEST와 관련된 특징이며 UDC에 동일하게 적용되는 고정된 5패싯 체계가 아니다. ㄴ의 '서지분류를 위해 널리 사용됨'은 UDC의 성격과 활용에는 부합하지만 CC까지 포함한 공통점으로 볼 수 없다. 올바른 조합은 ㄷ, ㄹ이다.
② X — ㄷ은 공통점이지만 ㄴ은 공통점이 아니며, 공통점인 ㄹ이 빠져 있다. 'ㄴ, ㄷ'이 아니라 'ㄷ, ㄹ'로 고쳐야 한다.
③ O — ㄷ과 ㄹ은 모두 공통점이다. UDC와 CC는 주제를 분석한 뒤 필요한 요소를 결합하는 분석합성식 방법을 수용하며, 합성기호를 이용하여 복수·복합주제를 하나의 분류기호로 표현할 수 있다.
④ X — ㄹ은 공통점이지만 ㅁ은 공통점이 아니며, 공통점인 ㄷ이 빠져 있다. UDC의 본표는 십진식 체계를 바탕으로 하지만 CC는 문자와 숫자 및 구두점 등을 함께 사용하는 혼합기호법이므로 '본표의 주류가 십진법으로 구성됨'은 두 분류법의 공통점이 아니다. 'ㄹ, ㅁ'이 아니라 'ㄷ, ㄹ'로 고쳐야 한다.

NoteBase

오답 포인트

ㄱ의 '5개'와 ㅁ의 '십진법'처럼 특정 분류표에만 해당하는 특징을 두 분류표의 공통점으로 착각하기 쉽다. 또한 UDC가 서지분류용으로 널리 활용된 사실을 CC에도 그대로 확대하면 ㄴ을 잘못 고르게 된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먼저 두 분류법의 공통 원리인 '분석 후 합성'과 '복합주제의 기호 결합'을 찾는다. 그다음 PMEST의 5개 기본범주는 CC, 십진식 본표와 서지분류의 폭넓은 활용은 UDC의 특징으로 분리하여 판단한다.

암기 포인트

UDC와 CC의 공통점은 분석합성과 복합주제의 기호 합성이고, CC는 PMEST, UDC는 십진식 체계가 핵심이다.

NoteBase

20. ㉠과 ㉡에 해당하는 인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 (㉠)는 세계서지를 편찬하고자 한 학자로, 21개류로 구분된 분류법을 고안하였다.
> - (㉡)는 12개 주류로 구성된 분류법을 고안하였다.

① ㉠ 게스너, ㉡ 노데
② ㉠ 노데, ㉡ 게스너
③ ㉠ 듀이, ㉡ 게스너
④ ㉠ 노데, ㉡ 듀이

정답 1번

출제 포인트

이 문제는 분류법의 역사에서 학자와 그가 고안한 분류의 주류 수를 연결하는 문제이다.

핵심 정리

게스너: 세계서지를 편찬하고자 자료를 21개류로 구분한 분류법을 고안하였다.
노데: 12개 주류로 구성된 분류법을 고안하였다.
듀이: 십진식 체계에 따라 지식을 10개 주류로 구분한 듀이십진분류법을 고안하였다.

선지별 해설

① O — ㄱ의 21개류는 게스너, ㄴ의 12개 주류는 노데와 각각 일치한다.
② X — ㄱ과 ㄴ의 인물이 서로 뒤바뀌었다. 틀린 표현 'ㄱ 노데, ㄴ 게스너'는 'ㄱ 게스너, ㄴ 노데'로 고쳐야 한다.
③ X — 게스너는 ㄴ이 아니라 ㄱ에 해당하며, 듀이는 지식을 10개 주류로 구분하였다. 틀린 표현 'ㄱ 듀이, ㄴ 게스너'는 'ㄱ 게스너, ㄴ 노데'로 고쳐야 한다.
④ X — 노데는 12개 주류를 제시한 ㄴ에 해당하고, 듀이는 ㄱ과 ㄴ 어느 쪽에도 해당하지 않는다. 틀린 표현 'ㄱ 노데, ㄴ 듀이'는 'ㄱ 게스너, ㄴ 노데'로 고쳐야 한다.

출제자가 노린 함정

게스너와 노데가 모두 초기 분류법사에 등장한다는 점을 이용하여 21개류와 12개 주류의 인물을 뒤바꾸거나, 널리 알려진 듀이를 끼워 넣은 것이 함정이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분류법의 주류 수를 인물과 함께 묶어 판단한다. '21개류·세계서지'가 보이면 게스너, '12개 주류'가 보이면 노데, '10개 주류·십진식'이 보이면 듀이로 연결한다.

NoteBase

암기 포인트

게스너 21, 노데 12, 듀이 10으로 묶어 기억한다.

NoteBase

21. 서가분류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시기적으로 서지분류보다 앞서 정립된 분류 방식이다.
② 정보자원을 서가상에 체계적으로 배열하기 위한 분류를 말한다.
③ 서가분류의 유형 중 개가제에 필수적인 배가 방법은 상관식 배가법(relative location)이다.
④ 서가분류의 유형 중 고정식 배가법(fixed location)은 별도의 서지분류법을 필요로 한다.

정답 1번

출제 포인트

서가분류의 목적과 역사적 성립 시기, 상관식 배가법과 고정식 배가법의 차이를 묻는 문제이다.

핵심 개념

서가분류는 도서관 자료를 서가에 체계적으로 배치하고 개별 자료의 위치를 정하기 위한 분류이다.
서지분류는 서지나 목록에 수록된 자료의 내용을 체계적으로 조직하여 검색할 수 있게 하는 분류이다.
상관식 배가법은 자료의 주제와 청구기호에 따라 상대적 위치를 정하므로 자료의 추가·이동에 유연하다. 고정식 배가법은 서가와 칸 등 물리적 위치를 미리 정하고 각 자료에 고정된 위치기호를 부여한다.

선지별 해설

① X — 틀린 표현은 '서지분류보다 앞서 정립'이다. 서지분류는 고대부터 발달한 반면, 서가분류는 근대 도서관에서 자료를 실제로 배열할 필요가 커지면서 서지분류보다 뒤에 정립되었다. 올바르게는 '서가분류는 서지분류보다 뒤에 정립된 분류 방식이다'이다.
② O — 서가분류는 정보자료를 서가 위에 체계적으로 배열하여 이용자가 자료를 찾고 다시 제자리에 놓을 수 있게 하는 분류이다.
③ O — 개가제에서는 이용자가 서가에 직접 접근하므로 동일·유사 주제의 자료가 함께 모이고 새 자료가 중간에 들어갈 수 있는 상관식 배가법이 필수적이다.
④ O — 고정식 배가법은 서가의 물리적 위치를 기준으로 자료의 위치를 정하는 방식이므로, 자료의 주제와 내용을 조직하기 위해서는 별도의 서지분류법이 필요하다.

오답 포인트

서가에 책을 꽂는 행위가 오래전부터 존재했다는 사실과 '서가분류가 하나의 분류 방식으로 정립된 시기'를 혼동하기 쉽다. ①의 함정은 단순한 보관의 역사를 근대적 서가분류의 성립과 같게 보는 데 있다.

NoteBase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목록·서지의 조직’이면 서지분류, ‘서가에서의 실제 배열과 위치 결정’이면 서가분류로 구분한다. 배가법은 자료와 함께 위치가 움직이면 상관식, 서가의 물리적 위치가 먼저 고정되면 고정식으로 판단한다.

암기 포인트

서지분류가 먼저, 서가분류가 나중이다. 개가제는 상관식, 고정식은 별도 위치기호이다.

NoteBase

22. 분류의 일반규정을 적용한 분류 결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기독교가 현대 한국문학에 미친 영향 → 현대 한국문학에 분류
② 대학도서관 통계 담당 사서를 위한 Python → Python에 분류
③ 정보사회와 피싱 범죄 → 피싱 범죄에 분류
④ 도서관 건축을 통해 바라보는 근대 생활문화사 → 근대 생활문화사에 분류

정답 2번

출제 포인트

분류의 적용 원칙에 따라 한 주제가 다른 주제에 미친 영향이나 한 주제가 다른 주제에 적용된 저작을 어느 주제에 분류하는지를 묻는 문제이다.

핵심 개념

적용 원칙: 한 주제의 다른 주제에 대한 적용 또는 영향 관계를 다룬 저작은 적용되거나 영향을 받은 두 번째 주제에 분류한다. 제목에 도구·원인·관점이 먼저 드러나더라도 실제 분류의 중심은 그 도구가 적용된 대상, 영향을 받은 대상, 또는 저작이 궁극적으로 고찰하는 주제이다.

선지별 해설

① O — 기독교가 현대 한국문학에 미친 영향을 다루므로 영향을 받은 대상인 현대 한국문학에 분류하는 것이 적절하다.

② X — ‘Python에 분류’한 부분이 틀리다. Python이라는 도구 자체를 설명하는 저작이 아니라 Python을 대학도서관 통계 업무에 적용하는 저작이므로, 올바르게는 적용 대상인 대학도서관 통계 또는 도서관 통계에 분류한다.

③ O — 정보사회에서 파생된 범죄 현상을 다루므로 실제 고찰 대상인 피싱 범죄에 분류하는 것이 적절하다.

④ O — 도서관 건축을 자료와 관점으로 삼아 근대 생활문화사를 고찰하는 저작이므로 궁극적인 연구 대상인 근대 생활문화사에 분류하는 것이 적절하다.

NoteBase

오답 포인트

②의 제목에 'Python'이 명시되어 있다는 이유만으로 프로그래밍 언어 분야를 선택하기 쉽다. 그러나 이 저작에서 Python은 목적이 아니라 대학도서관 통계 업무에 쓰이는 도구이므로 적용 대상 쪽에 분류해야 한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제목을 'A가 B에 미친 영향' 또는 'A를 B에 적용'의 구조로 바꿔 본다. A가 원인·도구·관점이고 B가 영향을 받거나 적용되는 대상이면 B에 분류한다.

암기 포인트

영향·적용 관계에서는 원인이나 도구가 아니라 영향을 받은 대상·적용 대상에 분류한다.

NoteBase

23.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음악의 내포는 '클래식, 재즈, 팝, 락, 메탈' 등이고 음악의 외연은 '목소리나 악기를 통하여 사상 또는 감정을 나타내는 예술'이다.
ㄴ. 예술, 회화, 수채화만을 두고 보았을 때 유개념이자 종개념이 될 수 있는 개념은 회화이다.
ㄷ. 내포가 증가할수록 외연은 감소한다.
ㄹ. 유개념과 종개념은 대등관계에 있는 양자의 관계를 설명하는 개념이다.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ㄷ ④ ㄷ, ㄹ

정답 3번

출제 포인트

개념의 내포와 외연이 반비례한다는 점, 그리고 유개념과 종개념이 상대적인 종속관계라는 점을 구별하는 문제이다.

핵심 개념

내포: 어떤 개념이 성립하기 위해 갖추어야 할 속성의 총체이다.
외연: 그 개념이 적용되는 대상이나 하위 개념의 범위이다.
내포와 외연: 내포가 증가하면 적용 범위가 좁아져 외연은 감소한다.
유개념과 종개념: 상위 개념과 하위 개념의 상대적 관계이다. 예술-회화-수채화에서 회화는 예술에 대해서는 종개념이고, 수채화에 대해서는 유개념이다.

선지별 해설

① X — ㄱ은 틀리고 ㄴ은 옳다. ㄱ은 내포와 외연을 서로 바꾸어 서술했다. '클래식, 재즈, 팝, 락, 메탈 등'은 음악 개념이 포괄하는 하위 범위인 외연이고, '목소리나 악기를 통하여 사상 또는 감정을 나타내는 예술'은 음악의 본질적 속성을 밝힌 내포이다. 올바르게는 두 내용을 서로 바꾸어 표현해야 한다.
② X — ㄱ은 틀리고 ㄷ은 옳다. 내포가 증가할수록 적용 대상의 범위인 외연은 감소하므로 ㄷ은 옳지만, ㄱ의 '내포'와 '외연'은 서로 뒤바뀌었다. 올바르게는 장르의 나열을 외연, 음악의 속성에 관한 설명을 내포라고 해야 한다.
③ O — ㄴ과 ㄷ이 모두 옳다. 회화는 예술에 대해서는 종개념이면서 수채화에 대해서는 유개념이 될 수 있고, 내포와 외연은 반비례하므로 내포가 증가하면 외연은 감소한다.
④ X — ㄴ은 옳지만 ㄹ은 틀리다. 유개념과 종개념은 같은 수준에 놓인 대등관계가 아니라 상위 개념과 하위 개념 사이의 종속관계를 설명한다. 올바르게는 '유개념과 종개념은 종속관계에 있는 양자의 관계를 설명하는 개념이다'라고 해야 한다.

NoteBase

오답 포인트

ㄱ은 예시가 먼저 나오고 정의가 뒤에 나와 그럴듯하지만, 장르의 나열은 외연이고 본질적 속성의 설명은 내포이다. 또한 ㄹ의 '대등관계'가 함정이며, 유개념과 종개념은 상하의 종속관계이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무엇에 적용되는가'가 제시되면 외연, '어떤 속성을 가지는가'가 제시되면 내포로 판단한다. 두 개념이 상위-하위로 포괄되면 유개념-종개념의 종속관계이고, 같은 상위 개념 아래 나란히 놓이면 대등관계이다.

암기 포인트

속성은 내포, 범위는 외연, 둘은 반비례한다. 유개념-종개념은 상하 종속관계이다.

NoteBase

24. 다음 중 X가 같은 숫자인 분야를 모두 고른 것은?

분야	KDC 6	DDC 23
㉠ 수학 (Mathematics)	4X0	5X0
㉡ 윤리학, 도덕철학 (Ethics)	1X0	1X0
㉢ 화학공학 (Chemical engineering)	5X0	6X0
㉣ 교육학 (Education)	3X0	3X0

① ㉠, ㉡ ② ㉠, ㉣
③ ㉡, ㉢ ④ ㉢, ㉣

정답 2번

출제 포인트

KDC 6판과 DDC 23판에서 각 분야의 세 자리 분류기호를 확인하고, 가운데 자리인 *X*가 같은 분야를 가려내는 문제이다.

자료 읽는 순서

1. 각 분야의 KDC 6판과 DDC 23판 분류기호를 완성한다.
2. 4X0·5X0처럼 표시된 세 자리 수의 가운데 숫자만 비교한다.
3. 두 분류표에서 *X*가 같은 분야를 묶어 선지와 대조한다.

핵심 근거

ㄱ 수학: KDC 410, DDC 510이므로 *X*는 모두 1이다.
ㄴ 윤리학·도덕철학: KDC 190, DDC 170이므로 *X*는 각각 9와 7이다.
ㄷ 화학공학: KDC 570, DDC 660이므로 *X*는 각각 7과 6이다.
ㄹ 교육학: KDC 370, DDC 370이므로 *X*는 모두 7이다.
따라서 *X*가 같은 분야는 ㄱ과 ㄹ이다.

NoteBase

선지별 해설

① X — ㄱ은 두 분류기호의 *X*가 모두 1이지만, ㄴ은 KDC 190의 9와 DDC 170의 7로 서로 다르다. 틀린 조합인 ‘ㄱ, ㄴ’은 ‘ㄱ, ㄹ’로 고쳐야 한다.
② O — ㄱ은 410과 510으로 *X* = 1이고, ㄹ은 양쪽 모두 370으로 *X* = 7이므로 두 분야 모두 조건을 충족한다.
③ X — ㄴ은 190과 170으로 *X*가 9와 7이고, ㄷ은 570과 660으로 *X*가 7과 6이어서 둘 다 조건을 충족하지 않는다. 틀린 조합인 ‘ㄴ, ㄷ’은 ‘ㄱ, ㄹ’로 고쳐야 한다.
④ X — ㄹ은 양쪽 모두 370이라 조건을 충족하지만, ㄷ은 570과 660이라 *X*가 7과 6으로 다르다. 틀린 조합인 ‘ㄷ, ㄹ’은 ‘ㄱ, ㄹ’로 고쳐야 한다.

오답 포인트

분야의 전체 분류기호가 같은지를 묻는 것이 아니라 각 기호의 가운데 자리 *X*만 같은지를 묻는다. 특히 교육학은 KDC와 DDC가 모두 370이고, 수학은 전체 기호는 410과 510으로 다르지만 가운데 숫자는 모두 1이라는 점이 핵심 함정이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먼저 각 분야의 분류기호를 완성한 다음, 문제에서 가린 자리만 세로로 비교한다. 이 문항에서는 백의 자리가 아니라 십의 자리인 *X*의 일치 여부만 판정한다.

암기 포인트

수학은 KDC 410 · DDC 510, 교육학은 KDC · DDC 모두 370이다. 가운데 수는 수학 1 · 1, 교육학 7 · 7로 일치한다.

NoteBase

25. 다음과 같은 항목으로 구성되어 배열된 목록은?

공공 행정	주제명
공지영	저자
기록관리의 세계	서명
기형도	저자
김훈	저자

① 사전체목록 ② 저자명목록
③ 표제목록 ④ 주제명목록

정답 1번

출제 포인트

저자명·서명·주제명처럼 성격이 다른 표목이 하나의 가나다순 배열에 함께 제시될 때 어떤 목록에 해당하는지를 묻는 문제이다.

핵심 개념

사전체목록: 저자명·서명·주제명 등 여러 종류의 표목을 사전처럼 하나의 자모순 배열에 통합한 목록이다.
저자명목록: 저자명을 표목으로 삼아 저자명순으로 배열한 목록이다.
표제목록: 자료의 표제, 즉 서명을 표목으로 삼아 표제순으로 배열한 목록이다.
주제명목록: 주제명을 표목으로 삼아 주제명순으로 배열한 목록이다.
이 문항의 목록에는 주제명인 '공공 행정', 저자인 '공지영·기형도·김훈', 서명인 '기록관리의 세계'가 하나의 가나다순으로 함께 배열되어 있다.

선지별 해설

① O — 사전체목록은 서로 다른 종류의 표목을 하나의 자모순으로 통합 배열한다. 제시된 목록도 주제명·저자·서명이 '공공 행정→공지영→기록관리의 세계→기형도→김훈'의 순서로 함께 배열되어 있으므로 사전체목록이다.
② X — 틀린 표현은 '저자명목록'이다. 저자명목록이라면 저자명 표목만 배열되어야 하지만, 제시된 목록에는 주제명과 서명도 포함되어 있다. 올바르게는 '사전체목록'이다.
③ X — 틀린 표현은 '표제목록'이다. 표제목록이라면 서명 표목을 중심으로 배열되어야 하지만, 제시된 목록에는 저자명과 주제명도 포함되어 있다. 올바르게는 '사전체목록'이다.
④ X — 틀린 표현은 '주제명목록'이다. 주제명목록이라면 주제명 표목을 중심으로 배열되어야 하지만, 제시된 목록에는 저자명과 서명도 포함되어 있다. 올바르게는 '사전체목록'이다.

NoteBase

오답 포인트

오른쪽 열에 '주제명·저자·서명'이 표시되어 있어 특정 표목만 모은 목록으로 오인하기 쉽다. 그러나 판단 기준은 개별 항목 하나가 아니라 서로 다른 표목들이 하나의 자모순에 통합되어 있는지 여부이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표목의 종류를 먼저 확인한다. 저자명·서명·주제명이 섞여 하나의 가나다순으로 배열되면 사전체목록이고, 한 종류의 표목만 모여 있으면 그 표목에 해당하는 저자명목록·표제목록·주제명목록이다.

암기 포인트

여러 표목을 한 자모순에 통합하면 사전체목록, 한 표목만 따로 배열하면 해당 표목별 목록이다.

NoteBase